

특집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 가을독서문화축제



민 경 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진흥팀장
gminn@kpec.or.kr

가을은 독서의 계절?!

‘가을은 비독서지절(非讀書之節)’

얼마 전 입적하신 법정스님이 우리네 독서풍토를 평한 일화 가운데 한 말씀이시다. 그저 애면글면 살아가는 중생들은 스님의 입적소식에 유고 사재기라는 왜곡된 형태로나마 침묵과 무소유로 일관된 그 삶을 붙잡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스님은 지인과의 독서에 관한 입씨름을 이렇게 소개한다.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을 연상한다는 친구에게, 맑고 푸르른 가을 날씨는 독서하기에 가장 부적당한 비독서지절이며, 더군다나 독서의 계절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부터 이상하다고. 얼마나 책하고 인연이

떨면 강조주간 같은 것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한숨 섞인 개탄도 덧붙여. 그러나 곧 스님은 그렇더라도 가을에 몇 권의 책을 읽으리라 다짐한다. 한 권의 책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안이한 일상을 깨우쳐 주기 때문이라며.

그렇다. 바야흐로 독서역력이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학생평가의 잣대로 활용되는 즈음에 '독서의 달' 까지 정해 전 국민 독서 생활화를 위한 축제를 수년째 하는 것은 그만큼 독서에 대한 당위성은 있으나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반증일 터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8년, 2009년 두 해에 걸쳐 가을독서문화축제를 개최해 왔다. 이는 곧 독립된 법령으로서의 행색을 갖추지 못한 독서 관련 규정들을 「독서문화진흥법」과 시행령이라는 하나의 틀에 담고자 했던 시기부터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가을독서문화축제를 개최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2009년 가을독서문화축제 상징물

가을독서문화축제, 부산으로 가다

올해는 지역 독서문화 증진이라는 화두에 맞춰 가을독서문화축제를 지방에서 개최하기로 한 첫 해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가을에 벌어지는 독서관련 행사들은 여럿이다. 와우북 페스티벌이 그렇고, 서울북페스티벌이 그렇다. 이에 비한다면 지역의 독서환경은 이렇다할 내용도 없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독서문화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의 달인 매년 9월에 각종 행사와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재정적·문화적·업무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2010년부터 축제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기로 한 것은 중앙과 지역의 독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에게 책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모를 통해 부산광역시를 2010년 가을독서문화축제 개최지로 선정하였고, 4월 14일에는 부산광역시청에서 허남식 시장과 양성우 위원회 위원장과의 '2010 독서문화축제 공동주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조례에 의해 부산문화재단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실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제반 계획과 실무를 위원회와 함께 수개월째 진행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축제가 단순히 관 주도의 '독서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 부산의 독서 관련 단체와 기관은 물론 서점과 출판사, 언론사, 교육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골몰하였다.



▲2010년 독서문화축제 협약식 장면

부산 가을독서문화축제의 이모저모

이번 축제는 '독서공방'을 주제로 한다. '독서공방'이란 빈 공간에 책을 채워 넣는다는 의미로서, 독서율이 저조한 부산이 책의 향기와 문화로 채워짐을 뜻한다. 또한 독서에 대한 공방을 통해 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와 독서가 있는 공방(工房) 즉, 독서 활성화를 위해 문화 예술적 접근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다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독서공방 로고

9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일원에서 펼쳐질 주요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시점의 계획이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노력으로 어떤 부분은 더해지고 어떤 부분은 감해지는 수정의 여지는 남겨두고 보시면 좋겠다.

◎ 공식행사

- 제16회 독서문화상 시상식 [17일(금) 16:00~17:30]
 -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통령표창 등 24명 시상
 - 개막공연 및 축하공연 : 국악 크로스오버밴드 '아비오' 등 출연 예정
- 지역 독서문화진흥 세미나 [17일(금) 14:00~15:30]
 - 독서문화진흥의 성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전국 지자체 독서담당 공무원 대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협조
 - 발제 및 토론자 : 김태승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 부산지역 독서진흥을 위한 포럼 [17일(금) 10:00~12:00]
 - 부산지역 독서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독서진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 발제 및 토론자 : 부산 지역 언론 및 독서클럽, 대학 관계자

◎ 실내프로그램

- 출판사 존(Zone)
 - 부산 및 서울 지역 출판사의 도서전시, 위원회 녹색출판 홍보부스
- 해외도서 존(Zone)
 - 독일도서전, 프랑스도서전, 일본도서전, 영어권도서전 : 부산 소재 문화원 협조
- 부산 독서문화 존(Zone)
 - MBC <책 읽는 사람> 추천도서 전시(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작지원 프로그램)
 - 부산 문학당 : 부산 출신 문인들의 작가와 작품 소개
 - 손으로 읽는 도서관 : 점자도서 전시 및 제작기기 소개, 부산점자도서관 협조
 - 부산지역도서관 :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도서관의 보유도서와 자료 전시
-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도서전
 - 파블로 네루다, 월레 소잉카, 윌리엄 포크너 등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작품 전시
- 보수동 헌책방
 - 보수동 헌책방 골목 재현과 헌책 판매

◎ 만남 · 강연프로그램

- 우지끈(우리 지금 끈끈하게 만날까요?) [18일(토), 19일(일)]
 - 전문 분야의 도서를 출판한 저명인사와의 만남
- 책과 꿈 [17일(금), 18일(토) 10:30~12:00, 19일(일) 13:00~14:30]
 - 동화작가의 학부모 대상 강연, 출판사 디렉터의 독서지도법 등 강의

◎ 야외프로그램

○ 테마별 도서 존(Zone)

- 다양한 주제 하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전시도서들을 안내
- <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책으로 맛보는 요리세계>, <책으로 듣는 음악> 등

○ 부킹 존(Book Exciting Zone), 어린이 독서마을 존(Zone)

- 책 클레이, 페이스페인팅, 책 비누 만들기 등 어린이들의 흥미유발 체험 공간

○ 책 이야기마을 존(Zone)

- <동화의 나라>, <한글 책 놀이>, <영어 책 놀이>, <책 미술관> 등

○ 책 안의 책, 책 밖의 책

- 책과 관련한 디자인, 그림, 캘리그래피, 책갈피, 한글 변천사, 북아트, 한국인쇄술 변천사 등 소개

◎ 현장프로그램

○ 인형극 <코막지> [18일(토) 11:30~12:30]

- 동화를 모티브로 한 인형극 공연

○ 거리 퍼포먼스

○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시상식 및 공연 [19일(일) 11:00~13:00]

- 부산 거주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수상자 가족 대상

○ 어린이 놀터

- 시간대별 독서퀴즈 진행, 탈 인형과 함께 축제장 둘러보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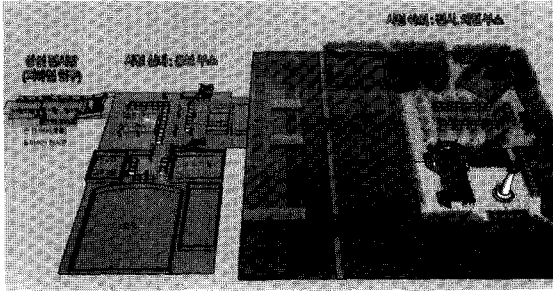
◎ 특별프로그램

○ 손 안 애서(愛書) 사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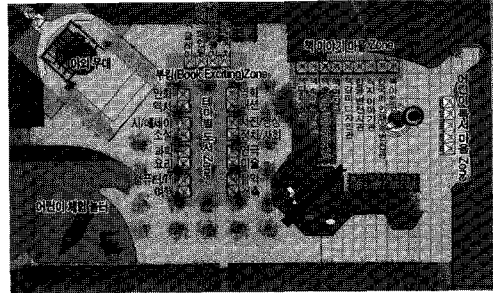
- 2010년 위원회 사진공모전 수상작 총 30점 전시

○ 열린 북 콘서트 'I love Book' [18일(토) 18:30~20:30]

- 부산지역 언론사 및 서점, 은행 후원
- 소설 및 시 낭송, 책 속의 연극 <바보각시>, 시 노래 콘서트 공연 등



▲전체 행사장 조감도



▲야의 행사장 전경

어느해 보다 의미 있는 가을독서문화축제를 기대하며

과거와 달리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축제이기에 무엇보다 어떻게 지역 고유의 독서환경을 접목 시키고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있다. 틀에 박힌 출판사 판매부스와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 대부분 책 축제라고 하면 떠올리는 풍경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산광역시 경우 이미 알고 있듯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지역문화의 고유 브랜드라고 할 만큼 자리 잡고 있어, 독서를 위한 행사가 이름처럼 '독서문화축제'로 될 지는 여전히 부산시와 위원회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처음은 있다. 단지 처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시작임을 선언하는 의미라면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을까. 부산시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서수수에 비해 정작 독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사실 역시 이번 축제가 의미 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첫 발을 내딛은 이번 축제가 기다려진다. 축제에서 만날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마음 가득 책과의 경험을 담아가기를 기대한다. (주)